

2018 년도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 사목지침

“사랑방 공동체 만들기”

우리네 어른들의 사랑방은 언제나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농번기에는 노동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곳이었고, 농한기에는 무료함을 달래주는 노랫가락이 흥얼거리는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의 정감있는 풍경들은 언제나 사랑방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방은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안식처였고, 주변 이웃들에게는 웃음을 꽃피우는 위안처였습니다.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곳, 언제라도 환대받으며 웃을 수 있는 곳, 내집 식구들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서두에서 “늘 새로운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제 교회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사랑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사랑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 웃음이 넘치는 곳, 위로와 평화가 실존하는 장소임을 증언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란,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인 본당 신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방 공동체’ 구현은 본당 구성원 개개인의 열린 마음과 다짐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기쁨에서 배제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공동체 건설(오이코도메)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18 년도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은 사랑방 공동체로 가꾸어가려 합니다.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되찾아 성당을 찾는 모든이의 발걸음이 행복하고, 봉사자들이 기쁨을 되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부임한지도 1 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느끼고 체험했던 은총은 참으로 큼니다. 기도의 은총을 체험했고, 교우들의 사랑의 온도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방에서 제가누린 은총을 함께 나누는 본당을 꾸리고자 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방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정감있는 친교의 공동체 만들기

본당의 발전은 공동체 친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기초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참된 형제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본당 전체의 분위기가 기쁨으로 쇄신되어야 합니다. 사목회를 비롯한 사도직 단체들은 하나의 공통된 지향을 향해 상호협력을 이루고 본당이 친교의 분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소공동체는 우리 본당의 가장 기초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소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과 노력들, 사목회 및 신심단체와의 연결고리들은 우리 본당이 따로 떨어져있는 지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일치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 각 신심단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보물들을 본당 공동체 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공동체 선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II. 복음화와 참여하는 평신도 사도직

각 부서와 단체들은 나름의 복음화계획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사목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본당진단을 통해 본당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 각 부서와 단체는 기존의 연례행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자기복음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공동체 구성원들은 관망하는 주변인이 아니라 참여하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봉사자를 양성하고, 1인 1단체에 가입하며, 새신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 평신도 사도직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Ⅲ. 가정공동체 성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며, 가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1. 가정 성화를 위한 각 부서와 단체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직장은 또다른 선교의 장이며, 복음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3.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문화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주임신부 신현만